리딩뱅크 맞수대결

윤종규의 굳히기냐 조용병의 뒤집기냐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삼성-애플, 한국-일본(축구), 김연아-아사다마오….'

스포츠나 기업 비즈니스 세계에서 실력이 막상막하인 '맞수'들의 대결은 언제나 흥미를 끈다. 여기에 양쪽의 스타일이 전혀 다른 경우라면 관전의 묘미는 '치명적인 유혹' 그 자체다.

은행가에서도 KB금융과 신한금융의 맞대결은 흥미진진한 경쟁으로 잘 알려져 있다.

3분기 예상 성적표는 윤종규 회장이 이끄는 KB금융의 승리가 예상된다. 하지만 조용병 회장이 이끄는 신한금융그룹도 최근 자산 기준 6위 생명보험사인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를 품에 안으면서 리딩뱅크 탈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올해 3분기에도 '리딩뱅크'(증권가 예상 순이익 9371억원)의 자리를 예약해 놓은 상태다. 예상대로라면 지난해 3분기 8975억원보다 4.41% 늘어나는 규모다.

신한금융지주도 근소한 차이(순이익 8555억원)로 뒤를 이을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KB금융이 국내 대표 금융지주 자리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최근 공격적인 인수·합병(M&A)으로 비은행 부문을 강화한 KB와 한 발 늦게 M&A 등을 통해 그룹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한 신한금융그룹의 차이가 크지 않아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은행 커버리지 분기별 순이익 추이 및 전망〉 /자료=IBK투자증권

구분	15.1Q	15.2Q	15.3Q	15.4Q	16.1Q	16.2Q	16.3Q	16.4Q	17.1Q	17.2Q	17.3Q	17.4Q	18.1Q	18.2Q	18.3Q
신한지주	592	692	679	409	771	683	708	612	997	892	817	212	858	938	904
KB금융	605	340	407	347	545	580	564	454	870	990	898	554	968	947	985
우리은행	291	226	323	219	443	307	356	155	637	461	280	134	590	716	622
하나금융	374	375	253	-67	438	352	450	105	492	539	510	496	671	635	667
기업은행	365	305	241	223	377	287	281	213	438	358	450	256	510	422	503
BNK금융	154	165	148	18	159	152	146	45	168	162	156	-83	207	150	172
DGB금융	106	95	81	13	101	82	70	34	91	90	90	31	92	106	103
합계	2,487	2,198	2,133	1,163	2,835	2,444	2,575	1,618	3,694	3,492	3,201	1,598	3,896	3,915	3,957

KB금융, 3분기도 리딩뱅크 수성
전년 동기 대비 순익 4.41% 늘어

신한금융, 오렌지라이프 인수에
신한생명 합병시 시너지 기대↑

"KB금융은 지난 2014년 LIG손보를 시작으로 현대증권까지 성공적인 M&A를 거치며 가장 이상적인 금융지주 수익모델을 완성했다"면서 "최근 신한지주가 오렌지라이프를 인수하며 이익수준에 있어 1위 탈환이 가능해졌으나 본격적인 합병 및 시너지효과가 발생하기까지 KB금융의 입지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조용병 회장도 조용하지만 공격적인 '킬러'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보험) 인수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오렌지라이프는 지난해 340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신한금융이 40.85% 잔여 지분을 모두 사들인다면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더 거두는 효과를 낼 수 있다. KB금융그룹이 KB손해보험 완전자회사화 과정에서 그랬던 것 처럼 잔여 지분을 싸게 인수한다면 염가매수차익도 기대할 만 하다. 여기에 신한생명과 합병한다면 추가 시너지도 기대된다.

조 회장의 글로벌 행보도 눈에 띈다. 조 회장은 지난 4월 초 아랍에미리트(UAE),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방문해 아부다비투자청(ADIA), 싱가포르투자청(GIC), 말레이시아 근로자공제기금(EPF) 등을 찾았다. 지난 9월에는 홍콩과 호주를 찾아 블랙록, 캐나다연금 등 글로벌 기관투자가를 잇따라 만났다. 조 회장은 글로벌 큰 손들에게 신한금융의 실적과 장기 성장 가능성을 설명하며 투자를 권하고 있다.

박 연구원은 "신한금융은 최근 증권-자산운용-은행 간 협업을 통한 투자처 발굴에 적극적이다. 국내 금융산업의 지난한 환경에 성장성이 발목 잡혀 내부적 시너지를 통한 효율성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듯 하다"면서 "아직은 스토리텔링에 국한된 추정이지만 오렌지라이프가 미래에셋생명보다 자본비율에 있어 훨씬 여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회계부담을 덜고 시작할 수있다. 100% 자회사가 되기 전까지 남은 작업이 많지만 1위 재탈환을 노려볼 만 하다"고 평가했다.

하나금융과 우리은행의 실적성적도 장밋빛이다.

하나금융지주의 3분기 예상 순이익은 6039억원 규모다.

KB증권 유승창 연구원은 "오는 2019년 우리은행도 지주회사 전환 후 비은행 강화 가능성이 높아 하나금융지주의 비은행 전략이 중요해졌다"면서 "외환은행 인수에 따른 영업권 상각 완료 및 판매관리경비율 개선 등이 실적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지만 향후 비은행에서의 실적 다변화 및 시너지 창출이 주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올해 3분기 실적 전망치는 5711억원이다. 이는 작년 3분기 2801억원보다 103.89% 늘어나는 예상치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한은-통계학회

데이터 분석·활용·이슈 인공신경 망 모형 등 논의

'데이터 사이언스와 경제통계' 포럼

한국은행은 오는 5일 한국통계학회와 공동으로 '데이터 사이언스와 경제통계' 포럼을 개최한다.

한은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학계를 비롯해 정부기관,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기계학습, 개인정보 비식별화, 인공신경망 모형 등 데이터분석 및 활용 관련 최근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89@

"돈 필요 없어요"… 은행들 채권발행 등 자금조달 줄인다

9·13부동산대책·금리상승 등 요인
주택저당증권 발행 감소 가능성도

9·13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국내 은행이 자금 조달 규모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3일 투자금융(IB)업계에 따르면 10월 시중은행의 은행채 만기 도래액은 3조1000억원이다. 특수은행 6조원을 합치면 약 9조 1000억원의 만기가 예정돼 있다.

한국투자증권 김기명 연구원은 "은행채는 9·13대책이 강력한 대출 규제 내용을 담고 있어 은행의 자금 수요 감소 요인(은행채 발행 축소)이다. 이 같은 규제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9월 13일 주택시장안정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9월 발표된 주택시장안정대책에선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금지, 고가주택 구매시 주택담보대출 금지,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주택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 등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시중은행들의 자금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곳간(정기예금)도 여유가 있다. 올해 1~7월 누적 정기예금 증가액은 45조6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연간 증가액 30조원을 웃도는 규모다.

또 2018년 3월 26일부터 도입, 시범 운영되던 은행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0월부터는 은행들의 관리지표로 본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중은행 자금조달 담당 A 임원은 "고위험 DSR 비중이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면서 "들리는 소식 처럼 현재 100% 이상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되던 기준을 80% 내외로 강화한다면 대출 수요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결국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는 은행의 가계대출 영업 축소로 이어지면서 은행채 발행 유인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NH투자증권 최성종 연구원은 "시중은행은 대출 수요 감소로 발행 유인은 줄어들 것"이라며 "다만 3조1000억원 규모의 만기가 예정돼 있어 만기 상환을 위한 발행은 이어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조달 비용도 부담이다. 최근 미국이 금리를 올린데 이어 추가 인상 가능성이 크고,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어서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경쟁적으로 돈을 풀던 세계 주요국이 내년에 잇따라 '돈줄 죄기(통화 긴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부담이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등 아시아 신흥국의 가산금리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올해 발행이 늘고 있는 조건부자본증권(Tier1 코코본드)의 가산금리는 낮아졌으나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발행금리는 높아지는 추세다. 예를 들어 신한금융이 지난 4월 발행한 5년 콜옵션부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금리는 4.08%였다. 이는 지난해 9월 3.77%에 비해 절대금리가 높은 수준이다.

/김문호 기자

신한은행

연금수령금 비대면 조회

신한은행은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 연금신탁계좌의 '연금 예상 수령금액 조회' 서비스를 시행 한다.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연금신탁 수탁금액(약 4조원)을 보유한 신한은행은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연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모바일 앱인 '신한쏠(SOL)'로 편리하게 연금수령액을 조회 할 수 있게 됐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내년부터 대부업도 개인대출시 연대보증 못 세운다

내년부터 은행과 제2금융권에 이어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신규 취급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계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그동안 제3금융권인 대부업계에 대해 자율적 폐지를 유도했지만 여전히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대형 대부업계(자산 500억원 이상) 연대보증대출 취급 현황은 ▲2015년 25만3000건, 1조161억원 ▲2016년 27만6000건, 1조440억원 ▲2017년 12만6000건, 7889억원 ▲2018년3월 기준 11만9000건, 83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당국은 연대보증이 대부업체의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시키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단해 연대보증 폐지하기로 했다.

우선 금전대부업자(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등)와 매입채권추심업자, P2P연계대부업자 등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대출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다만 법인대출은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배우자 등 합계 지분 30%이상 보유자 중 1인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한다. /유재희 기자